

경기도문화의전당

- 지하철** 수원역 하차 후 시내버스(20분 소요)나 택시(10분 소요)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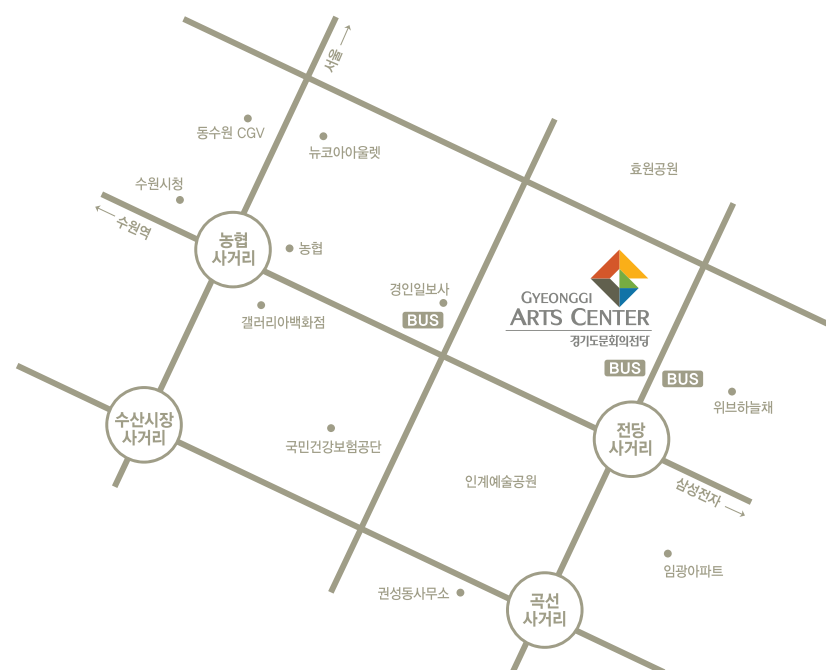
버 스 **〈출발지〉** 수원역 4번 출구 : 92, 92-1, 83, 83-1, 82, 82-1, 15, 51
 서울 사당 7000 (수원법원 하차 / 83-1, 82-1) / 7001 (전당하차)
 강남 3001 (수원법원 / 83-1, 82-1) / 3007 (전당하차)
 잠실 1007 (수원법원 하차 / 83-1, 82-1)

〈도착지〉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 하차 : 92
 갤러리아 / 경인일보 앞 하차 : 15, 51, 52, 82, 82-1, 83, 83-1
 씨티은행 앞 하차(도보 5분) : 15, 92, 92-1

-  **자가용** **동수원 톨게이트** → 광주수지방향 → 주유소 끼고 우회전 → 월드컵경기장방향
→ 시청방향으로 계속 직진 → 고가도로를 지나 갤러리아 사거리 좌회전
→ 좌측 경기도문화의전당 도착

북수원톨게이트 → 동수원사거리에서 직진 → 시청사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좌회전
→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에서 직진

수원톨게이트 → 수원방향으로 좌회전 →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도착



예술과 만남

2011 November 11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 I Arts Habitat
II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기획칼럼

- 영화와 명무의 재발견
소리로, 피리로, 그리고 사물로

경기도립예술단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국악단

A violin and bow are positioned diagonally across the frame, resting on a thick layer of dry, yellowish-brown autumn leaves. The violin's body is a deep reddish-brown, and the bow is light-colored wood. The background is a rustic, weathered wooden surface. The overall mood is warm and nostalgic, evoking the feeling of autumn.

Happy Present to Open Mind

푸르던 잎사귀는
어느새 붉게 익어가고

타오르던 잎사귀는
어느새 낙엽이 집니다.

가을은 무르익어
겨울의 문턱을 넘나들지만

언제나 정겹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
경기도문화의전당

2011 November 11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예술과 만남

- 07 **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I · II**
Arts Habitat 「경기어린이대합창단(함께하는 행복교실)」
「찾아가는 축제 한마당」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 14 **기획공연**
진짜 여자가 되는 즐거운 마법 「메노포즈」
첼리스트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
- 20 **칼럼**
명화(名畵)와 명무(名舞)의 재발견
소리로, 피리로, 그리고 사물로
- 22 **Arts on Screen**
혁명과 사랑의 아리아 「세계 4대 뮤지컬 레미제라블」
- 24 **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명인을 만나다 - 최근순」
「2011 천지진동 페스티벌」 리뷰
- 28 **대관공연**
가족뮤지컬 「슈퍼영웅 뽀로로」
가족뮤지컬 「피터팬」
- 29 **경기도립예술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꿈나누기」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경기도립무용단 전통무용극 「도미부인」
예술감독 인터뷰 시리즈 「조흥동 예술감독」
경기도립국악단 제9회 정기연주회 「It's 사물놀이」
11월 예술단 공연일정표
- 41 **GGAC 뉴스**
- 42 **11월 공연일정**



www.ggac.or.kr



예술과 만남 통권 제86호

발행인 손혜리
편집인 손혜리
편집 · 자문 이미영
기획편집 이현수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T. 031-230-3200 F. 031-230-3249
디자인 · 제작 한라에드플러스(주) T. 031-247-5141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모집

경기도문화의전당 · 경기도립극단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립국악단

Art +

-  **회원구분** 일반회원(3만원) / 골드회원(5만원)
-  **회원혜택** 가입단체 정기 · 상설공연 초대권 년 총4매 제공(2회 2매)
모든 가입단체 정기 · 상설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티켓 구매 시
일반회원 10~30% / 골드회원 20~50% 할인
주차비면제(공연관람시)
-  **가입문의** Tel. 031-230-3242 / www.ggac.or.kr



경기도민 행복만들기
PROJECT

Arts Habitat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Arts Habitat의 함께하는 행복교실

우리 모두 다르지만 함께 노래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 안산 대부도에서는 경기어린이대합창단 지도교사들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웃음과 함께 땀방울이 맺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본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행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전략사업팀 우정호

경기어린이대합창단 지도교사 워크샵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 안산 대부도에서는 경기어린이대합창단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발표회에서 보았던 선생님들을 다시 보니 왠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를 다시 만난 반가운 느낌이었다. 선생님들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쉴 틈 없는 일정들이 진행되었다. 저녁식사 후 선생님들과 소통의 시간으로 난타수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엔 모두들 ‘웬 수업이냐’고 의아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함께 땀방울이 맺히며 수업을 즐기기 시작했다. 선생님들 모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함께 시간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합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그 동안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던 이런 느낌(레크리에이션이나 게임이 아닌 함께하는 즐기는 수업의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 기획했다. 수업시간을 마친 후 선생님들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서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늦은 밤 일정을 마치고 개인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다음에는 꼭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시간이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오늘은 화요일

〈경기어린이대합창단-희망나눔 합창단〉을 만나는 날입니다. 입구에서 지난시간에 다른 파트보다 한 번 더 부르게 한다고 화를 내며 간식도 안가지고 나가버린 알토파트의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지난주 간식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알고 네가 양보해줘서 선생님이 속으로 참 고마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1명 더 와서 진짜 1개가 모자랐거든요.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지난번에도 자기 가 학교에서 양보해준 일이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두개 줄께 하며 아이의 손을 함께 힘차게 흔들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오늘따라 더욱 즐겁게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노래하기 좋아해 수업시간 전에 먼저 와서 노래 부르려고 기다리는 친구.

노래하기 싫어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는 친구.

노래 소리 보다 떠드는 소리가 더 큰 친구.

함께 하면 부르지만 혼자하면 절대 안 부르는 친구.

음치인데도 정말 크게 부르는 친구.....

우리 모두 다르지만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며 그 아이들안에 있는 갈등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 때문에 종종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잡고 함께 노래한다면 저와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1월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의왕, 과천, 안양 친구들과 함께 합창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아이들과 저의 마음에 오랫동안 행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 군포 희망나눔 합창단 지휘자 이은경-



Arts Habitat의 찾아가는 축제 한마당

모두 주인공이 되었던 군부대 공연의 진수

9월 22일 「한반도의 중심, 로하스 연천」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연천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과 함께 꾸며진 특별한 공연이었다. 최근 개관한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연천군청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협조로 군 장병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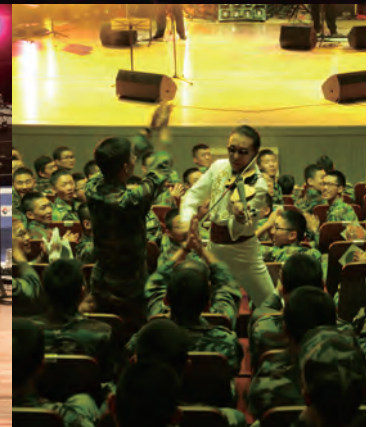
●글. 전략사업팀 우정호

9월 22일 목요일 날씨 맑음

가을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도 더운 기운이 완연하다.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 펼쳐진 들뜬 노란 황금색으로 점쳐 물들고 있었다. 오늘 축제는 수원에서 차로 2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한반도의 중심, 로하스 연천」이다. 최근 멋진 공연장(수레울아트홀)이 개관했지만 연천은 경기도의 북단에 위치하여 많은 문화적 수혜를 받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다. 특히 오늘은 더욱이 연천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과 함께 이번 공연을 꾸미게 되었다. 연천군청과 함께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협조로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군 장병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진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 그것도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연은 무엇보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팝스앙상블의 리더인 김권식 단장의 즉흥적인 제안에 장병 50여명이 한꺼번에 무대 위로 올라와 함께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여기서 장관이라고 말한 것은 똑같은 옷차림에 생김새도 비슷한 시커먼 남자청년들이 함께 막춤을 추는 광경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혈기 왕성한 장병들이 추는 춤 기운에 공연장의 무대는 적어도 5cm는 가라앉은 것 같았다. 무대감독과 부대관계자들은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장병들을 진정시키는 풍경도 연출되었다. 글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장병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포상휴가와 함께 여성출연자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객원여가수와 치어리더들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객석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나의 군 생활도 이랬을까? 본 공연에 함께하신 부사단장께서 가장 열성을 보인 장병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150분의 공연이 끝났다. 장병들은 못내 아쉬운 듯 연신 “앵콜! 앵콜! 앵콜!”을 외쳐댔다. 장병들의 강한 열망이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당초 계획했던 1곡을 넘어선 총 3곡의 앵콜을 선사했다. 출연자도 관람자도 함께 주인공이 된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군부대 공연의 진수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내내 차안에서 스태프들과 오늘 공연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웃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6:00

드디어 리허설 시작!

지난 3개월간의 오디션과 레슨을 거친 마지막 연습 무대였다. 모두들 1600여석 규모의 무대에는 처음 서보는 지라 쭈뼛쭈뼛. 무대 감독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은 첫 번째 리허설 주자는 정병학 씨. 자리를 잡은 정병학 씨는 마치 실전처럼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노래를 토해 내었다. 리허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음 주자는 흡사 프로 성악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연호 씨와 아름다운 여신의 자태를 뽐내고 계시는 유재욱 씨. 〈금단의 노래〉, 〈넬라판타지아〉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듀엣 곡을 불렀다. 2개월 여간 연습도 많이 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빠격겨린다. 하지만 지휘자의 도움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무사히 리허설을 마쳤다. 이어 이성진 씨의 순서. 이성진 씨는 어떤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노래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열창을 이었다. 공연 때 무리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다음은 오민구 씨. 그는 다른 출연진과 다르게 핸드마이크를 들고 리허설을 진행했다. 손이 어색한지 좀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소화하고 리허설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은 이번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진난수씨. 그녀는 무대에 등장이 쉽지 않아 스텝들의 도움으로 무대 위에 올라섰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리허설이 시작이 되었다. 음악에 빠져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존경을 드린다. 무사히 마친 리허설! 공연 때도 이와 같이 무사히 끝나길 기도하며 리허설을 끝이 났다.



10월 13일 연습장면



10월 15일 연습장면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 내 생애 첫 번째 무대 vol. 2

희망을 노래하는 보통사람들

지난 10월 1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은 ‘보통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의 막이 올랐다.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출연진이 희망을 소통하는 공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전략사업팀 안성현

15:00

출연진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병학, 성연호, 유재욱, 이성진, 오민구, 진난수! 오늘의 주인공들이다. 행복한대극장 로비에서 만난 이들은 공연시간 5시간 전이었지만 긴장한 모습들이 역력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노력에 대한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대기실로 들어간 이들은 각자 몸을 풀고 목을 가다듬으며 4시부터 있을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다. “선생님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오민구 씨가 정병학 씨에게 인사를 건넨다. “아휴, 말도 마요. 잠을 한 숨도 못 잤네.” 라며 웃으신다. 그렇게 리허설을 준비하는 동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튠링 소리가 한창이다.



20:00

오프닝 영상과 함께 공연이 시작

지난 7월 오디션 영상이 지나가며 오디션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보였다. 모두들 열심히 해 주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오늘 희망을 노래하는 6명의 목소리가 그들 뒤편까지 꿈과 희망을 진심으로 전달해 주었으리라 믿으며,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마친 6명이 앞으로 또 꿈과 희망을 노래하길 응원한다.



10월 19일 공연장면



진짜 여자가 되는 즐거운 마법 메노포즈

2005년 초연 이후 6년 동안 통런 중인 뮤지컬 ‘메노포즈’
중년 여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공연입과 동시에 내노라 하는 여배우들의 워너비 뮤지컬!
2010년 10월 공연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2011년 11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다시 한번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글. 공연기획팀 박소현

SYNOPSIS

백화점 속옷 세일 코너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문직 여성, 전업주부, 한물간 연속극 배우, 그리고 웰빙 주부는 브래지어 하나를 두고 옥신각신하다
가 서로의 고민을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폐경’이라는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 그들은 기억력 감
퇴, 발열, 홍조, 도한, 성형수술, 호르몬, 성욕 감퇴 또는 증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된다. 그리고 폐경을 겪으며 여성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계기가 될 것임을 깨닫고 유쾌하고 신나게 노래한다.

ABOUT THE SHOW

메노포즈, 진짜 여자가 되는 즐거운 마법!

‘폐경’, ‘폐경기’ 라는 뜻의 단어인 ‘메노포즈’.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에 여성들은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뮤지컬 〈메노포즈〉는 결코 우울하지 않다. 오히려 우울한 이 단어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다. 이 작품에서는 네 명의 중년 여성이 우연히 백
화점 세일 코너에서 만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폐경기’ 동안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한
다. 2011년 ‘메노포즈’로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은 뮤지컬 〈메노포즈〉로 인해 진짜 여자가 되는 즐거운 마법에 걸릴 것이다.

공연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 된다!

관객들은 뮤지컬 〈메노포즈〉를 보는 동안 무릎을 치며 웃다가, 코 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공연이 끝나고 귀에 익숙한 ‘YMCA’의 멜로디가 시작되면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함께 즐거운 축제에 빠져든다. 두 시간 동안 그녀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 있던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들의 손짓에 따라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간다. 그리고 배우들과 함께 어우러져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거리를 서로가 눈빛으로 이야기하며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온 몸으로 춤을 추며 다시 태어난 첫날을 만끽한다. 무대 위에 함께 서 있
는 동지들과의 끈끈한 유대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는 〈메노포즈〉가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에너지일 것이다.

귀에 익숙한 뮤지컬넘버, 60~80년대 올드팝과 함께 나누는 향수와 감수성

뮤지컬 〈메노포즈〉에는 60~80년대 팝송인 〈Only you〉, 〈YMCA〉, 〈Stayin’ Alive〉, 〈What’s love got to do it〉, 〈New Attitude〉, 〈Lion Sleeps
Tonight〉 등의 익숙한 멜로디가 등장한다.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귀에 익은 멜로디는 중년 관객들의 향수를 건드리며 감수성을 자극한다. 또
한, 익숙한 멜로디에 극 상황과 캐릭터에 맞는 가사로 개사하여 관객들에게 배꼽 빠지는 재미와 코 끝이 찡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뮤지컬 메노포즈

- 공연일시 : 2011년 11월 12일(토) ~ 13일(일) / 오후 3시, 7시
-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 관람연령 : 14세 이상
- 러닝타임 : 100분 (인터미션 없음)
- 출연진 : 해은이, 이영자, 진아라, 구혜령, 유보영
- 티켓가격 : R 5만원, S 4만원, A 3만원, B 2만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 문의 :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Cast and Character

한물간 연속극 배우 役 해은이

배우라는 직업답게 매력적이며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 예전에 유명한 TV 드라마에서 맡았던 천진한 소녀 역할을 훌쩍 넘어 선 중년이지만 우아하게
늘어가기 위해 투쟁 중이다. 이것이 자신의 생계와 생활의 모든 것을 좌우 할 수도 있기에 우아하게 늘어가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
다.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두려움도 많지만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들로 인해 세상에는 아름다움 말고도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업주부 役 이영자, 구혜령

관리를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그녀가 입는 옷 스타일로 인해 더 뚱뚱해 보인다. 그녀는 순진해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호르몬
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활기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들을 우연히
만나 수다를 떠는 도중 자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아 간다.

전문직 여성 役 진아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그녀는 다른 남들과의 경쟁에서 몇 배로 열심히 일해서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그녀의 성공은 주위의 사람들을 잃게 만들었다. 그
녀의 딸과 엄마 마저도..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달려오게 한 원동력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인지 헷갈린다. 거기가 호르몬
의 변화로 여성성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로 인해 통제력도 잃어가는 것 같아 매일이 괴롭다.

웰빙 주부 役 유보영

즐겁고 쾌활한 성격의 그녀는 60년대 히피 스타일을 동경하는 아주 건강한 채식주의자이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만났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차
종류를 좋아한다. 판단이 앞서지 않는 따뜻한 성격이다. 잠을 못 잤을 때면 뺨다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좋은 엄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화내
는 법이 없지만 좀 잘 빠질 뿐이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힘이 있으며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진짜 여자가 되는
즐거운 **마법**

대한민국
NO.1
빅스타 메가히트쇼 *Menopause
The Musical*

메노파즈

헤은이 이영자

2011. 11. 12 | SAT - 13 | SUN |
3pm, 7pm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진아라 유보영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입장연령 14세 이상

예매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문의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www.ggac.or.kr

첼리스트 양성원의 새로운 출발, 트리오 오원!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이 2010년 전석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트리오 오원(Trio OWON)'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11월 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연주한다.

●글. 공연기획팀 조연주

'트리오 오원(Trio OWON)'의 세연주자는 영화 '취화선(2002)'에서 그려진 조선말기 화가 장승업(1843~1897)의 예술세계에 감명 받아 그의 호(號)인 '오원'을 차용하여 트리오 이름을 붙였다. 경계를 허문 음악인이 하나가 되어 깊고도 다채로운 예술적 영감을 통해 청중과 비전을 온전히 공유하는데 그 목표를 세웠으며, 파리음악원 출신으로 친구이자 음악적 선후배이기도 한 그들은 영국, 프랑스, 한국에서 수차례의 공연과 녹음 활동을 펼쳐 왔지만, 이번 공연은 '트리오 오원'으로서의 첫 공식 데뷔무대라 더욱 특별하다. 풍성한 가을 의욕적인 출발을 알리는 '트리오 오원'의 첫 무대. 그들이 연주하는 주옥같은 실내악은 깊어가는 가을밤을 촉촉히 적시는 낭만적 선율을 선사할 것이다.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 Trio OWON

- 공연일시 : 2011년 11월 7일(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
- 티켓가격 :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 문의 :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공연 프로그램

하이든 피아노 트리오 제39번 G장조 '집시 론도' Hob XV/25
Haydn Piano Trio in G major 'Gypsy Rondo' Hob. XV/25

라벨 피아노 트리오 a 단조
Ravel Piano Trio in a minor

INTERMISSION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제2번 Eb장조 D.929, Op.100
Schubert Piano Trio in E-flat major D.929, Op.100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첼리스트 양성원 Sung-Won Yang

세계 각국의 청중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과 갈채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은 뉴욕의 링컨센터, 카네기 홀, 워싱턴DC의 테라스 극장, 파리의 살 가보우, 살 플레엘, 일본의 NHK홀 등 세계 굴지의 유명 공연장에서 가진 연주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그는 20세기 첼로의 거장 야노스 슈타커의 애제자로 그의 조교를 거쳐 인디애나 대학(블루밍턴)에서 일찍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수년 전부터 국제적인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로서 유명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북 유럽 등지에 초청되어 연주하고 있다. 2006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양성원은 최근 2009년 제4회 대원음악연주상, 제1회 객석예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꾸준한 레코딩 아티스트

또한 양성원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적인 음반사 EMI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며, 총 4장의 음반을 발매하였다. 특히 2000년에 녹음한 졸탄코다이의 작품집을 EMI를 통해 발표하여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와 세계적인 음반전문지인 그라모폰지(Gramophone)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그라모폰지에서는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와 '크리티क्स 초이스(Critic's Choice)'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라흐마니노프와 쇼팽의 낭만적 작품으로 이루어진 그의 두번째 EMI 음반은 지난 2002년 3월 출시되었고, J.S.바흐무반주첼로 모음곡의 3집 CD 는 2005년 4월에 출시되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레퍼토리로만 가진 명동성당에서의 독주회는 전회 전석 매진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을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 기부 하였다. 또한 2006년 실내악 전문 연주홀인 세종체임버홀 개관 기념 시리즈의 일환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이틀 동안 연주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07년 전석매진의 성황을 이뤘던 LG아트센터의 공연에 맞추어 발매되었던 베토벤첼로소나타전곡 녹음 역시 큰 호평을 받은바 있다. 2009년부터 양성원은 EMI에서 유니버설 뮤직으로 등지를 옮겼으며, 오는 2011년 10월에는 트리오 오원의 첫 공식 데뷔음반이 발매될 예정이다.

후학양성에 힘쓰는 교육자

2004년에는 세계적인 국제 실내악콩쿠르인 캐나다 밴프 국제 음악 콩쿠르(Banff International Competition)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금호사중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프랑스 뮤직 알프(Music Alp), 미국 보도윈(Bodowin), 독일 마인츠(Mainz) 등의 국제음악제에서 초청받아 연주 및 공개 레슨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에드몬튼 대학, 미국의 이스트만 음악학교 등의 명문 대학에서도 마스터클래스를 하는 등 동서양을 횡횡무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울 태생으로 파리음악원과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끊임없는 도전의식과 왕성한 연주 활동으로 세계를 향하여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슈트라세 Emmanuel Strosser

엠마누엘 슈트라세는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고향인 스트라스부르에서 Hélène Boschidhk와 함께 음악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후에 파리음악원에 입학하여 장-클로드 펜티에와 피아노를, Christian Ivaldid와 함께 실내악을 공부하였다. 피아노와 실내악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상을 수상한 이후에 레온 플라이셔, 디미트리 바쉬키로브 그리고 마리아 후앙 피레스로 부터 교육을 받았고, 피렌체 국제 실내악 콩쿠르 입상, 1991년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에서 결선 진출자가되는등각종콩쿠르에서두각을나타냈다. 현재는 파리음악원의 알랭 플라네(Alain Planès)의 조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유럽과 멕시코, 남아메리카, 일본, 한국, 미국 등지에서 리사이틀의 솔리스트로 무대에 설 뿐 아니라 주요 프랑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유럽북부, 이탈리아 등지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고 있다. 그는 에비앙, 라 로크 당테롱, the Musicales de Lyon, L'Epaу, Sceaux, 프라드, 쿠모 같은 주요 페스티벌에도 참가해왔다.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Olivier Charlier



14살의 나이에 이미 콩쿠르에 입상, 화려한 수상경력을 쌓은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파리음악원에서 장 위보(실내악)와 피에르 도캥(바이올린)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나디아 블랑제, 예후디 메뉴인 그리고 헨릭 셰링과 같은 위대한 아티스트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17살에 뮌헨 쿤쿠르, 18살에 몬트리올 쿤쿠르, 19살에 시벨리우스 쿤쿠르에서 각각 입상한 후, 20살엔 자크 티보와 SACEM 게오르게 에네스쿠상, 21살에 인디아나 폴리스 그리고 1989년 29살에는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과 같은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바이올린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어린 나이부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한 그는 곧 자크 티보, 지네트 느브, 그리고 크리스티앙 페라스로 이어지는 프랑스 바이올린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헤이그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BBC 필하모닉, 할레 오케스트라, 베를린 심포니, 함부르크 및 자르브뤼케 라디오 오케스트라, 뷔르템베르크 체임버 오케스트라, 몬테카를로 필, 프라하 필,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요미우리 니혼 및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많은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로 협연해 왔다.

지난 시즌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등지를 투어 했을 뿐 아니라, 샤를르 뒤트와의 지휘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남아프리카에서 협연하기도 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 지역에서 공연을 펼쳤다.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음반 녹음 활동도 활발한데, 안 파스칼 토르틀리에 지휘의 BBC 필하모닉과 녹음한 뒤티외 바이올린 협주곡 "L'arbre des songes", 마티아스 바메르트 지휘의 BBC 심포니와 녹음한 로베르트 게르하르 협주곡은 모두 산도스 레이블로 발매되어 1998년과 1999년 각각 프랑스 '음악의 승리'상에 노미네이션 된 바 있다.

또한 로렌스 포스터 지휘의 몬테 카를로 필하모닉과 멘델스존 협주곡(에라토)을 녹음했고, 장 자크 칸토로우 지휘의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와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EMI 프랑스)을 녹음했으며, 또한 장 위보의 피아노 반주로 프랑스 작곡가 프랑크가 작곡한 소나타 모음집을 녹음해 선보이기도 했다. 그밖에 생상, 피에르네와 비에른(에라토) 등의 음악을 녹음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존 맥이웬이 쓴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나타 음반은 올해 말에 발매될 예정이다.

명화(名畵)와 명무(名舞)의 재발견



이병준

현)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무용월간지 댄스포럼 기자 및 평론가

몇 년 전, 세계 제일이라는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유난히 길었던 관람객들의 꼬리를 더듬어 마침내 대면했던 40만 작품 중의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다-에 대한 감정은 지금껏 나를 미묘한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 단언컨대, 그날은 물론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행렬을 이루고 있을 사람들 대부분은 미술, 혹은 예술에 관하여 비전문가들일 것이다. 그래서 문득 묻고 싶다. '그대들은 진정 그 작품의 위대성을 온전히 체득하고 있는가!'

평생을 한국무용에 몸담아 왔던 어느 교수님의 자조섞인 독백이 떠오른다. "요즘은 대학 석·박사 학위 논문주제의 6, 70% 가량이 '한국춤의 대중화 방안'입니다."

이 또한 참으로 미묘한 낯두리이다. 그리고 그 말의 행간에는 '한국춤의 대중화가 얼마나 요원한가?'에 대한 현실적 안타까움이 반증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춤의 현실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만스런 단정 앞에 덧붙일 변명조차 궁색한 것이 사실이다. 누구의 책임일까? 그리고 정말로 해결방안이 있기는 한 것일까?

감히, 레오나르도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 <최후의 만찬>을 말하고자 한다. 1495년부터 2년여에 걸쳐 그려졌던 이 작품은 완성 이후,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심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6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선명한 원작의 색채와 감흥을 만끽하고 있다. 도도한 역사의 퇴적을 거스른 철저한 고증과 노력, 그리고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 낸 복원의 승리이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림, 조각, 문서 등등 모든 고전의 복원은 100% 완벽한 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원의 원칙은 최대한의 유사성에 도달하되, 누가보더라도 '복원'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언제라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나중에 훨씬 더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방편이다. 지금 <최후의 만찬>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교육과 설명만 수반된다면 그 흔적을 충분히 짚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으로 막혀 있다. 원작의 감동과 작자의 예술혼을 전달하기 위한 고단한 노력이 보존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춤이란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의 전통춤은 더더욱 그러하다. 전통춤에 있어 원형 복원의 궁극적 목적은 박제화된 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달리 전승(傳承)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춤의 복원은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전승보전의 역할은 분명히 일반 관람객들에게 있다. 그들이 끊임없이 원형의 복원과 변형의 차이를 발견해 내고 간섭할 때 우리의 전통은 새로운 가치를 정립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리고 많이 접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가만히 앉아서 무조건적인 재미와 흥미를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중지병(畵中之餅)의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만약,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작품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의 눈과 귀는 보고 듣고 아는 것만큼만 요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중히 당부하건대, 그동안의 타박일량 접어두고 지금이라도 당장 공연장으로 달려가보라. 그리고 유심히 생각해 보라. 저들이 왜 무대를 지키고 있을까? 아마도 내년쯤이면 <모나리자> 못지않은 우리의 '명무(名舞)'를 스스로 발견하고 공연장의 긴 행렬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소리로, 피리로, 그리고 사물로



윤중강

음악평론가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국악방송 꿈꾸는 이리랑 진행

서 조출하게 펼쳐지는 무대가 오히려 더 알찼다. 안숙선(판소리 명창), 김형석(대중음악 작곡가, 음반프로듀서), 최경만(피리 명인)을 초대해서 펼친 마스터클래스는 다른 축제와 변별성을 갖는 전주세계소리축제만의 독특한 콘셉트였다. 전주에서 소리축제가 열리니, 경주에선 피리축제를 열려야한다! 경주의 국악인들이 힘을 모았다. 경주는 저 옛날 만파식적(萬波息笛)의 고향 아닌가! 만파식적(萬波息笛),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이다. 올해 처음 열렸는데, 나름 잘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라도의 전주소리축제처럼, 경상도의 경주피리축제도 더 알차게 성장해가길 바란다.

그렇다면 경기도엔 어떤 축제가 있을까? 저마다 알차게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박수와 함께 힘찬 추임새를 보태고 싶다. 그러나 확실하게 크게 떠오르는 축제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런 경기도 땅에서 대한민국사람 모두가 주목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바로 '천지진동'이었다. 새삼 사물놀이의 신화를 만들어낸 김덕수 명인이 진정 위대한 인물이거나, 생각해 만든다. 더불어서 이번 축제를 기틀을 만들어낸, 경기도 지역의 풍물, 연희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은 마음이다. 사물놀이의 악기만으로 장관을 만들어냈다. 단지 기네스북적인 사고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팽과리, 장구, 북, 징의 네 악기만으로 사람과 세상과 신명나게 소통했다는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흔히 축제라거나 큰 이벤트에는, 여러 악기가 등장을 하고, 여러 그룹이 등장을 해야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오직 네 악기와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이번 천지진동을 계기로, 이런 축제의 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클래식분야에서 해마다 연말이면 '합창 교향곡'을 공연하기도 하고,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한다. 그러나 우리 국악을 매개로 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21세기 제천의식", 이번 사물 악기를 중심으로 한 천지진동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다. 풍물을 매개로 해서, 인간이 하늘과 땅과 소통하는 판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 '천지진동'은 우리네 전통의식인 영고(迎鼓)와도 맥이 통한다. 북을 치면서 경사스런 것들을 맞이하는 축제가 아니었던가. '천지진동'은 우리 식의 추수감사 의식인지도 모른다. 장구와 북이 만들어내는 '가죽소리'와 팽과리와 징이 만들어내는 '쇠소리'가 결합해서 풍요와 다산(多産)을 비는 전통적인 의식과 놀이! 그것이 21세기 이 땅에서 다시금 재현된 것이다. 그 옛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있었던듯, 장구 북 징 팽과리가 사방신(四方神)이 되었다.

올해 남원춘향제도 주목할 만하다. 바로 춘향의 혼을 불러내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축제는 놀이지만, 그 출발은 분명 의식에서 시작된다. 의식과 놀이가 잘 조화된 축제를 기대한다. 강릉단오제를 펼치는 사람들이 높은 대관령이 올라와서 신을 모시고, 마을로 와서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축제는 종교를 떠나 존재한다. 축제는 종교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축제는 일상과 일탈의 넘나들 속에서, 세상의 모든 구분을 흐트러 트리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결합시키는 에너지원이 된다. 이런 축제의 본질이 잘 살아있는 축제가 경기도 땅에서 더 많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천지진동을 통한 대동단결! 열싸구, 절싸구, 어절싸구! 일상과 일탈, 의식과 놀이가 잘 조화된 21세기형 축제, 21세기형 제천의식! 경기도땅에서 새롭게 일구어내길 바란다.

Arts on Screen

혁명과 사랑의 아리아

세계 4대 뮤지컬 레미제라블

4대 뮤지컬이라 불리는 <오페라의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의 최고의 제작자인 카메론 매킨토시의 레미제라블 25주년 실황공연. 역사상 최고의 감동적인 실황공연을 4K로 느껴보자.

●글. 공연기획팀 김태균

- ★ 예술성과 대중성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최고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 ★ 1985년 오리지널 초연 공연 이후 25주년을 맞는 기념 공연
- ★ 알피 보, 레아 살롱가, 라민 카림루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
- ★ '조나스 브라더스'의 닉 조나스 출연
- ★ 오리지널 캐스트와 2010년 캐스트가 함께 무대에 서는 감동의 하모니



1985년 오리지널 캐스트와 2010년 캐스트가 한 무대에!

조나스 브라더스의 닉 조나스, 알피 보, 레아 살롱가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들이 함께한 기념비적 공연!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으로 나폴레옹 제국 시대부터 동맹국이 프랑스 왕으로 추대한 샤를 10세의 시대가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피끓는 혁명정신, 노동자와 농민들의 거친 저항 정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애를 다룬 매우 문학적이고 웅장한 오페라형 뮤지컬이다. 1980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던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자인 카메론 매킨토시가 작품 전체를 개작하여, 1985년 10월 8일 런던 바티칸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 연출가 트레버 넌, 작곡가 손 버그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런던의 '레미제라블'은 예술성과 대중성의 양면에서 뮤지컬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고 1987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게 된다. 대사 위주와 동작 중심의 형식에서 벗어나 48곡의 개성 넘치는 노래들을 라이브 송으로 연결해 뮤지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5년 초연된 카메론 매킨토시의 '레미제라블'이 2010년 25주년을 맞아 10월 런던의 O2센터에서 기념공연을 가졌고, 이 기념공연 실황을 닉 모리스가 영상으로 담아냈다.

영국 출신의 스타 테너, 알피 보가 장발장 역을 맡고 조나스 브라더스의 닉 조나스가 마리우스로 캐스팅되었으며 <사랑은 영원히>의 팬텀 역인 라민 카림루가 양철라를, 10주년 공연에서 에포닌을 노래한 레아 살롱가가 팬티오로 등장한다. 무엇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1985년 오리지널 캐스팅의 등장이다. 세월의 연륜을 느끼게 하는 명배우들의 노래와 연기가 25주년 기념 캐스트와 함께 무대에서 어우러진다. 장발장의 인간적인 고뇌와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순수한 사랑, 확고한 자기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자살하는 자베르, 에포닌의 슬픈 사랑, 세상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등 모든 것이 담겨진 대작.

<캣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레미제라블>은 세계 42개국 21개국의 언어로 공연되었으며, 네 작품 중 한국어로 정식 공연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올해로 최장기간 연속 공연 뮤지컬로도 기록된 <레미제라블>! 시대와 사상을 뛰어넘어 고전의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뮤지컬의 역사적인 25주년 현장을 그 감동 그대로의 사운드와 화질로 만날 수 있다.

경기도국악당 「명인을 만나다」

최근순의 가락에 웃고 타령에 울고

1. 금강산타령

금강산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이라도 하듯 철 다라 그 이름도 달라서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불린다. 이렇듯 철철이 이름이 다르고 비단을 두른듯 아름답다는 금강산을 노래한 금강산타령은 서정적이고 경기소리의 화려한 시김새가 잘 표현된 곡이다.

최근순, 김정우, 허성자, 강명숙, 임효정, 박영화, 정미령, 엄인숙, 견두리, 김윤희, 이승희, 연은지, 김선미, 오유나, 최지영, 윤혜주, 홍혜림

2. 노랫가락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노래의 하나인 노랫가락은 원래 서울지방의 무녀들이 굿판에서 부르던 무가였는데 1900년대를 전후하여 대결에 드나들던 무당들에 의해서 전하게됨에 따라 그 이후로 널리알려진곡이다. 시조시를 따서 초장, 중장, 종장의 3형식으로 5박 8박의 장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최근순, 임효정, 김윤희

3. 창부타령

창부타령은 노랫가락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방에서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부르는 타령이 세속화 된 노래이다. 일반적으로 무속에서 부르는 것과 민요로 부르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 만큼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최근순

4. 장기타령

전통적인 오락기구의 하나인 장기를 주제로 한 장기타령은 그 사설이 장기 이외에 중국의 유명한 고사와 인물, 덕담 및 제주의 풍속 등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근순, 견두리, 김윤희, 이승희, 연은지, 김선미, 오유나, 최지영, 윤혜주, 홍혜림

5. 건드령타령, 는실타령, 한강수타령, 경북궁타령

각 지역의 특산물을 처녀들이 장사 나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엮은 건드령타령, 경쾌한 가락으로 이어지는 는실타령, 물에 관한 내용과 사랑을 담은 한강수타령, 경북궁 중건을 노래한 경북궁타령 등 종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의 장단에 얹어 타령을 주제로 엮어간다.

최근순, 이윤경, 박진하, 함영선, 이나현, 하지아

6. 대감타령

서울 및 경기 지역 재수굿 중 대감굿에서 불려지는 무가이다. 대감굿은 터주신을 제향하는 굿거리로 대감청배와 대감공수에 이어 대감놀이 행하여지는데 여기서 대감타령이 불려진다. 가사의 내용은 대부분 대감신을 불러 재수 있게 도와달라는 축원과 덕담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 공연의 백미를 선보인다.

최근순

공연일정 및 출연자 프로필

공연일시	출연진	출연자 프로필
11월 19일 (토)	慧領(혜령) 최 근 순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 - 경기도립 국악단 민요악장 - 2006년 KBS 국악대상 수상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수상 - 경기도속민요 연구회장 - 제33회 한국방송대상 - 한얼예술진흥회 회장
	만수받이 최 은 호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 -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 장원 - KBS 서울 국악대경연 장원
	장 구 장 덕 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고법 전수조교 - (사)한국국악협회 이사
	피 리 김 찬 섭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도당굿 보유자 - 한양대학교 국악대학 겸임교수
	기 타	- 최근순 문하생 - 경기도립 국악단 성악팀

2011 특별기획공연

출연

慧領 최근순

만수받이 최은호

장구 장덕화

피리 김찬섭

최근순 문하생

경기도립국악단 민요성악팀

2011
11.19(토) 오후 5시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한국민속촌 옆)

명인을 만나다

최근순의
가락에 웃고 타령에 울고

2011 천지진동 페스티벌 리뷰

‘하나’의 소리로 천지를 ‘진동’시키다

●글. 행복지기 여재구 (단국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재학생)



2011년 10월 3일 하늘의 문이 열렸다. 전국에서 모여든 2011명의 공연단원들의 천지를 흔드는 북, 징, 팽과리, 장구의 웅장한 소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의 마음은 물론이고 하늘의 가슴까지 울리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단위의 사물놀이 공연은 22년 만에 경기도(고양)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기원과 더불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소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다. 또한 2011명의 적지 않은 인원의 화합된 ‘소리’는 우리 사회에 ‘통합’의 염원에 대한 갈증을 암시하는 듯, 모든 이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번 페스티벌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충분히 우리사회에 매우 큰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라, 경상, 충청, 강원 전국에서 모인 2011명의 단원들은 직업도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한 날 한 시에 ‘하나’의 소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 천지를 그야말로 ‘진동’시켰다.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의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전국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땀띠’라는 지체장애아들도 또한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던 것을 통해 편견의 벽을 넘어 아름다운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페스티벌 중간 중간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단원들을 찾아가보며 느낀 또 하나의 감동은 모두들 하나같이 자신이 정말 즐기고 행복해 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사물놀이라는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 이들은 함께 모여 서로 소리를 섞어 천지를 감동시킬 힘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에서 인지 활력에 넘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신나는 표정의 한 할머니는 “나는 오늘 같은 날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라며 이번 공연이 단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해오고 있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이렇듯 시민들에게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위, 나이, 신체적 불편함에 관계없이 모두 문화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포용하여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향유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본다.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가족뮤지컬 “슈퍼영웅 뽀로로”

공연일정 2011년 11월 5일(토) ~ 11월 6일(일)

공연시간 11시, 14시, 16시 30분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아트플러스 골드회원 20%할인

아트플러스 일반회원 15%할인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

티켓예매 인터파크

공연문의 031-258-9053

SYNOPSIS

힘도 세고 하늘도 승승~ 나는 슈퍼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뽀로로~!

뽀로로는 자신이 영웅이라며 나무에 걸린 패티의 모자를 찾아주겠다 나서지만 실패하고, 루피의 쿠키상자를 쏟아버리고, 크롱의 자동차를 망가트리는 등 말썽만 피우고 만다.

의기소침해진 뽀로로는 방에서 홀로 어떻게 하면 진짜 슈퍼영웅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다 잠들어버린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눈을 뜨니 평~ 하는 소리와 함께 영웅 뽀로로가 나타난다.

영웅 뽀로로의 가르침을 통해 뽀로로는 진짜 슈퍼영웅이 될 수 있을까?



컬러그림자극과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피터팬”

공연일정 11월 18일(금) ~ 20일(일)

공연시간 금요일 10시 10분, 11시 20분

토요일 12시, 14시, 16시 / 일요일 13시, 15시

관람료 15,000원 / 아트플러스회원 10,000원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티켓예매 사랑티켓, 인터파크, 옥션티켓

공연문의 02-2654-6854

SYNOPSIS

동화책 피터팬을 읽다 잠든 웬디에게 어느날 네버랜드로부터 피터팬과 팅커벨이 찾아온다. 잠에서 깨어난 웬디는 이내 피터팬을 알아보고 함께 환상과 동화나라 네버랜드를 여행하기로 한다. 네버랜드에는 어른들에게 버림받은 착하고 개성있는 소년들 들 창코와 주근깨가 살고 있다. 웬디는 피터팬으로부터 엄마가 되어줄 것을 부탁받고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한다. 아이들은 언 제나 한손을 악어에게 잃어버린 무서운 외팔이해적 후크와 그의 부하 포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웬디는 아이들의 잠자리에 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엄마와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어느날 팅커벨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웬디와 소년 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하지만 땅속집을 벗어나는 순간 숨어있던 해적들에게 모두 잡히게되고 피터팬마저 독약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마시게 되는 위기에 빠지는데, 위기의 순간 팅커벨은 대신 독약을 먹고 피터팬을 구하고 죽게된 팅커는 요정을 믿는 어 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게되고 피터팬은 후크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준다.



경기도립예술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국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꿈나누기

‘합주’를 처음 배우던 날

●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실 김원철

탁탁탁!

“자, 제가 누구죠?”

“지휘자 선생님이에요!”

“네. 지휘자가 지휘봉을 이렇게 들면 조용히 하세요. 지휘봉을 내리면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내다가 지휘봉을 거두면 소리를 멈추세요.”

짜아—

악기 소리를 내는 법을 처음 배운 아이들이 합주 연습을 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해서 합주라기보다는 그냥 혼돈이다. 현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음계도 제대로 짚지 못한다. 그러나 지휘봉에 따라 소리를 냈다가 멈췄다가 하는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쉼 소리, 여린 소리를 구분해서 연주하는 법도 배웠다. 합주 연습이 끝나면 악기마다 따로 가르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음계를 대충이라도 소리 낼 수 있는 아이들은 쉬운 곡을 배우기 시작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오케스트라 꿈나누기

- 지역 :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시흥, 성남, 평택 외
 - 교육개시 : 2011년 8월
 - 교육주기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 교육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 교육대상 : 도내 다문화가정,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등 초등학생, 중학생 중 50여명
 - 교육내용 : 오케스트라 구성악기 전체 강좌 운영 (피아노 제외)으로 이론 및 실기교육 병행
- ※교육재(강사)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구성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구자범) 단원의 예술재능기부를 토대로 경기도 내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문화배려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케스트라 꿈나누기】 프로그램을 8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공익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환경과 여건상 음악교육을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꿈을 나누고, 더 나아가 클래식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클래식 음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대상으로 선발된 인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마련한 장소에서 악기 연주법과 음악 이론을 배우고 다 함께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해 보는 경험을 하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 가게 될 것이다. 교육은 2년 과정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악기 연주에 흥미를 느끼고 연주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도록 꾸준히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조재현 이사장은 이 사업에 악기 구입비 전액을 기증하여 경제여건이 취약한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모든 수업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통과하면 악기는 수강생 소유가 된다.

“고슴뚝이기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잘 듣고 따라 하는 제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중학교 1·2학년인 제 학생들은 한참 사춘기를 거쳐 반항하고 싶은 나이일 텐데, 너무 즐거워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와 주는 예쁜 애들을 보면 몸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보람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원철 (플루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한국 지휘계의 거목, 떠오르는 별을 만나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구자범)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연주회를
11월 19일 토요일 8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개최한다.

●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실 김원철

ANTONÍN DVOŘÁK

이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는 박은성 지휘자가 객원 지휘하며,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과 월튼 비올라 협주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을 연주한다. 협연자 박경민 씨는 예원학교에 입학한 해에 어린 나이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고 현재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젊은 비올라 연주자이다. 2008년부터 사이먼 래틀, 클라우디오 아바도, 다니엘 바렌보임,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등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연소 객원 연주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레오니다스 카바코스(Leonidas Kavakos), 콜야 블라허(Kolja Blacher)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 실내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박경민 씨는 지난해 영국 라이오넬 테르티스(Lionel Tertis) 국제 비올라 콩쿠르에서 2등 수상한 바 있는데, 라이오넬 테르티스는 이번 연주회에서 박경민 씨가 협연할 월튼 비올라 협주곡을 세계 초연한 비올라 연주자라서 이번 연주회가 더욱 뜻깊다.

라이오넬 테르티스 국제 비올라 콩쿠르 2등 수상!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등 거장 연주자들과 협연 경력!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젊고 재능 있는 음악인에게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주고자 인포머티브 오디션(Informative Audition)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력 등을 따지지 않고 실력만으로 평가하여 숨은 인재들에게 등용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재능을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박경민 씨를 한국 지휘계의 거목 박은성이 소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지휘계의 계보를 이어온 관록 있는 지휘자 박은성이 대한민국 음악계에 새로 떠오르는 별 박경민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지 기대된다.

※ 인포머티브 오디션이란 공연 시스템이 잘 확립된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하는 제도로, 이미 정해진 공연을 앞두고 연주자를 구하는 오디션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오디션을 말한다. 평소 인포머티브 오디션으로 얻어낸 연주자들의 실력 및 기타 정보는 나중에 열릴 연주회에 함께 할 연주자를 뽑는데 사용된다. 인포머티브 오디션은 관록만을 내세우는 연주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신인 연주자들을 발굴해 연주 기회를 주고 관객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 – 《마탄의 사수》 서곡

Carl Maria von Weber – Ouverture zur Oper 《Der Freischütz》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카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가 『요괴담』(Das Gespensterbuch)이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작곡한 오페라이다. 독일어 제목인 “Der Freischütz”는 영어로 풀어 쓰면 “The Free Shooter”에 해당하는데, 우리말로로는 자유자재로 원하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마술 탄환이라는 뜻을 살려 보통 《마탄의 사수》(魔彈의 射手)로 옮긴다. 이 오페라는 독일 오페라 양식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바그너 작품 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페라 전곡 가운데 서곡이 연주된다.

윌리엄 월튼 – 비올라 협주곡 (협연: 박경민)

William Walton – Viola Concerto

월튼 비올라 협주곡은 1929년 작품으로 월튼이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에 영향받아 쓴 곡이다. 때때로 조성이 흐려지거나 복조성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조성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며 3악장은 조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날카롭고 변칙적인 리듬과 냉소적인 우울함이 돋보이며, 악곡 형식은 변형된 소나타 형식과 론도 형식을 따른다. 비올라는 거칠고 어두운 음색 때문에 예로부터 독주 악기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악기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여러 작곡가가 비올라 음색에 가능성을 발견하여 훌륭한 비올라 곡을 남겼고, 그 가운데 협주곡으로는 월튼과 더불어 버트코, 힌데미트 등이 쓴 작품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예원학교에 입학한 해에 어린 나이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고 현재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젊은 비올리스트 박경민 씨가 협연을 맡는다.

안토닌 드보르자크 – 교향곡 7번 D단조

Antonín Dvořák – Symphony No. 7 in d minor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은 작곡자가 브람스 교향곡 3번을 듣고 자극받아 쓴 곡으로, 때마침 런던 필하모닉 협회 명예 회원이 되면서 작품을 위촉 받았다. 이 작품은 앞선 교향곡과 견주면 브람스 음악에 영향 받아 체코 음악 양식이 열린 편이다. 그러나 작품에 담긴 민족주의적 자의식은 뚜렷하며, 이 곡을 쓸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 마음속에는 사랑과 하느님과 내 조국이 있다”라고 썼다. 그런가 하면 느린 2악장 악보에는 “슬픈 나날로부터”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죽음 및 첫 아이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협연자 : 비올리스트 박경민



2008년부터 사이먼 래틀, 클라우디오 아바도, 다니엘 바렌보임,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등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베를린 필 오케스트라 최연소 객원 연주, 레오니다스 카바코스(Leonidas Kavakos), 콜야 블라허(Kolja Blacher), 슈테판 피카르트(Stephan Picard), 라르스 아네르스 톰테르(Lars Anders Tomter) 등과 함께 실내악 연주, 비올리스트 노부코 이마이(Nobuko Imai), 하르트무트 로데(Hartmut Rohde), 바바라 베스트팔(Barbara Westphal), 볼커 야콥센(Volker Jacobsen), 빌프리트 슈트렐레(Wilfried Strehle; 베를린필 수석) 등의 마스터클래스 참가

2006 빈 국립음대 비올라 전공 최연소 입학
볼프강 클로스(Wolfgang Klos), 울리히 쇤하우어(Ulrich Schöner) 사사
2008 빈 국립음대 재학 중 도독,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입학, 발터 퀴스너(Walter Küssner) 사사
2011 현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디플롬 과정 중. 타베아 치머만(Tabea Zimmermann) 사사
2010 영국 라이오넬 테르티스(Lionel Tertis) 국제 비올라 콩쿠르 2등
2010 독일 알리스 잠터슈티프퉁(Alice Samter-Stiftung) 국제 실내악 콩쿠르 2등
2010 동아음악콩쿠르 1등
2008 슬로베니아 블레드 음악제(Festival Bled) 국제 콩쿠르 1등

지휘자 : 박은성



1945년 10월 12일 함경북도 회령 출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수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KBS교향악단 수석 객원지휘자, 한양대학교 교수 등 역임
빈국립음악대학 지휘 석사, 오토마 주이트너 사사
1970년 국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지휘
음악비평가협회 제13회 음악대상 수상
한국음악상 수상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 월튼 비올라 협주곡 (협연: 박경민)
-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d단조
- 공연일시 :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 공연장소 :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 홀)
- 입장권 : A석 3만원 / B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 공연문의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031-230-3322, 3320, <http://g-phil.kr>



경기도립예술단



경기도립무용단 전통무용극 「도미부인」

도미와 아랑의 애절한 Love story...

1500년 전 백제의 슬프고도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2011년 경기도문화의전당 무대에서 화려하게 재현되다!

경기도립무용단 기획공연 '도미부인'은 1994년 '올해의 좋은 연출가 상'을 수상할 만큼 현재 한국무용계에서 가장 많은 춤사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적 미학', '관객을 압도하는 빠른 구성', '뛰어난 비주얼'로 그동안 "꿈, 꿈이었으니", "황진이" 그리고 최근에 "태권무무 달하"까지 수많은 대작을 안무한 "춤사전" 조흥동 예술단장의 만남으로 공연예술계에선 이미 화제가 되었다.

●글. 경기도립무용단 기획실 박수연

이번 기획공연은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도미설화'에서 그 소재를 찾아 작년의 초연을 선보인 후로 오는 11월 25일(금), 26일(토) 양일간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다시 올린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일반적인 문법, 화법을 그쳐 또 한 번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스텝과의 활발한 소통,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완성된 장치와 구성들을 적극 활용하고 감각적인 춤사위로 관객에게 극적인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미부인'은 '춘향전', '놀부전', '심청전' 등 기존에 구전되던 이야기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다. 먼저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 그렇고 일반적인 능력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왕(계루)의 사적인 이야기(욕심 많고 이기적인 권력자의 횡포)를 통하여 역사적인 관점이 아닌 개인의 이야기를 무대에 펼쳐 놓는 것이 그렇다.

또한 예술감독인 동시에 안무와 구성을 총괄 지휘한 조흥동 예술단장이 이미 국립무용단 재직시절 주역으로 출연했었다는 재미있는 사실과 '태권무무 달하'에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던 '이영진', '이동준', '박정미'의 기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공연장을 찾아야 하는 이유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
번
의
무용단 기획공연
「도미부인」

- 공연일시 : 2011년 11월 25일 19시 30분 / 11월 26일 17시
-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 입장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관람연령 : 6세이상
- 출연 : 경기도립무용단
- 주최 : 경기도문화의전당
- 공연문의 : 경기도립무용단 기획실 031-230-3313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문화의전당
GYEONGGI ARTS CENTER



도미와 열녀 아랑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전/통/무/용/극

도미부인

예술감독 | 조흥동 안무 | 김정학 출연 | 경기도립무용단

2011. 11.25 (금) 오후 7시 30분 / 26 (토)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 경기도립무용단 제35회 정기공연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할인 | 아트플러스회원 ·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우와 동반 1인 50% / 20인 이상 단체 30% / 자매결연아파트 · 경기 I-PLUS 카드 20% ※상기 할인율은 일반만 적용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문의 | 031-230-3440~2 www.ggac.or.kr (6세 이상 관람가)

예술감독 인터뷰 시리즈

경기도립무용단 조흥동 예술감독

경기도립무용단은 10월 16~27일 미국 LA, 솔트레이크시티, 아이다호주 보이즈,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 등 5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앞두고 있다. 세계 전통문화유산 태권도와 전통무의 아름다운 춤사위의 '태권무무 달하'로 공연을 준비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조흥동 예술감독, 그의 포부를 고스란히 공연에 담았다.

●글. 경기신문 문화부 김장선 기자

“
아시아를 넘어
북아메리카 지역에
한국의 전통춤을
알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조흥동(70) 경기도립무용단 예술감독은 10월 16~27일 미국 LA, 솔트레이크시티, 아이다호주 보이즈,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 등 5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태권무무 달하' 순회 공연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전통문화유산 태권도와 전통무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조화시킨 '태권무무 달하'가 해외로 널리 뻗어나가고 있다.

광주 남한산성 야외공연에 이어 전당 행복현대극장 무대까지 보다 업그레이드된 스토리와 안무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낸 '태권무무 달하'. 지난해 일본 공연에 이은 북아메리카 공연의 성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이번 해외 공연은 우리의 가락과 춤사위를 강조해 '가장 한국적으로 간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예술감독은 사대문에 고전 무용연구소가 많았던 60~70년대, 61곳의 연구소를 모두 방문해 전통춤을 섭렵하는 등 한국적인 춤사위가 가장 많은 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국악사양성소 김보람 선생을 비롯, 김백봉·이매방·김석출 선생 등 전국 전통춤의 대가라 불리우는 스승만 17명에 이를 정도다. 그는 2001년 60명의 단원으로 연간 150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도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뒤 제자들에게 자신의 춤과 우리나라의 전통춤사위를 전수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관객과 하나가 되는 공연을 연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지루하다’는 한국무용의 인식을 개선키 위해 한 장면을 3분 이상 넘기지 않는 등 신나고 즐거운 볼거리 공연을 추구한다.

그렇기에 그는 내년 ‘달하’ 공연은 연극과 뮤지컬적 요소(노래와 가사)가 가미한 총체적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변신을 시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조 예술감독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자 경기도의 대표작품으로 여기고 앞으로 보다 진일보된 ‘달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동안 무용수의 기량을 A급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무용단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립국악단 제 91회 정기연주회

It's 사물놀이



당신이 알고 있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 그들이 온다.

2011. 11.3(목) 오후 7시 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관람료: R석-30,000원 / S석-20,000원 / A석-10,000원 예 매: 인터파크 티켓 1544-2344 www.interpark.com

문의: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031-289-6471~3 www.ggac.or.kr

할인: 청소년·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 동반 1인 - 50% / 아트플러스 골드회원·20인 이상 단체 - 30%
아트플러스 일반회원·전통문화교육강좌 수강생·I-plus 카드·무한돌봄 경기사랑카드·경기도민원전철365카드·그린카드 소지자 - 20%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도내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 10%

경기도립국악단 제91회 정기연주회

It's 사물놀이

경기도립국악단(단장 김재영) 제91회 정기연주회 'It's 사물놀이'는 '사물놀이'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화를 통해 기존에 알고있는 사물놀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주를 시도하는 연주회로 11.3(목) 오후 7시 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글,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조은희



이번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전수교육조교인 '조갑용 악장'을 주축으로 하는 경기도립국악단 사물놀이팀의 설장고합주 등을 선보인다. 국악단 타악, 관악 연주자들이 펼치는 '퍼커션과 관악기를 위한 모음곡은 라틴음악의 색채에 타악 솔로가 겹쳐져 경쾌하면서도 다이내믹한 리듬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또한 '왕의남자'로 유명한 줄타기 명인 권원태 선생님의 줄타기로 1부에는 사물놀이의 진수를 감상할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영남지방에서 주로 정월대보름에 불린 영남성주굿을 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조갑용 악장만의 독특한 소리목과 관현악 선율의 조화로 사뭇 다른 감칠맛 나는 '성주굿'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경기도 이남지방의 무속음악에서 유래하여 민속음악 장단 특유의 역동성에 바탕을 둔 곡으로 사물놀이의 신명난 가락이 국악관현악과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을 연주한다. 또 국악단 사물놀이팀의 풍물과 진주삼천포 12차능악보존회 '숫대쟁이

패'의 죽방울 놀이, 한국 종합예술학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예인집단 '더(The) 광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한국 비보이를 이끌어갈 차세대 비보이팀 '퓨전엠씨(Fusion MC)' 등 최고의 기량을 가진 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新 판굿'을 연주한다. '新 판굿'은 다채로운 춤사위와 발림 그리고 다양한 진법놀이와 개인놀음을 통해 신명을 보여주는 풍물판굿의 재미에 '숫대쟁이패'의 독창적인 놀이기능으로 곡예의 수준을 넘어 해학과 풍자를 담아 관객들에게 정제된 풍물놀이의 한계를 넘어서는 장을 보여주는 죽방울놀이가 가미된다. 그리고 '버나'라는 도구를 앵두나무 막대기 위에 올려 돌리는 한국의 전통기예와 재담을 결합한 버나놀이, 코리아 갓 탈렌트에 출연하여 큰 이슈가 된 비보이팀 'Fusion MC'의 현란하고 신나는 비보이까지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 을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준다. 영상과 빛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봐왔던 판굿의 틀을 깨고 더욱 역동적이고 진정한 흥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11월 예술단 공연일정표

일정	지역	장소	예술단
11월 3일(목) 19:3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제9회 정기연주회)	경기도립국악단
11월 4일(금) 19:00	수원	공군비행단	경기필하모닉
11월 5일(토) 14:00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야외소무대(모듬북)	경기도립무용단
11월 5일(토) 19:00	의왕	계원예술대학	경기필하모닉
11월 8일(화) 13:20	성남	성은학교	경기필하모닉
11월 11일(금) 14:00	파주	탄현초등학교	경기도립무용단
11월 15일(화) 11:00	용인	국악당 흥겨운극장	경기도립국악단
11월 15일(화) 13:20	양평	조현초등학교	경기도립국악단
11월 17일(목) 11:00, 14:30	안양	평촌아트홀(4번 출구)	경기도립국단
11월 19일(토) 20:00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경기필하모닉
11월 23일(수) 14:00	파주	대성동초등학교	경기도립국악단
11월 24일(목) 13:30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경기도자원봉사대회)	경기도립국악단
11월 25일(금) 19:3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도미부인)	경기도립무용단
11월 26일(토) 17:0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도미부인)	경기도립무용단
11월 28일(월) 14:00, 17:00	서울	성동구청(4번 출구)	경기도립국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1 November 11

경기대학생공연박람회 폐막

올해로 7회를 맞이한 경기대학생공연박람회가 25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폐막식을 개최하였다.

11개 대학의 연극·뮤지컬 전공 학과가 참여한 이번 공연박람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패기와 열기로 가득찼으며, 특히 올해에는 취업박람회와 연계되어 졸업 후의 진로를 안내하고 영화배우 박철민, 영화감독 김현석씨가 초청강연을 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10월 12일 시상과 함께 폐막이 선언 되고 난 후, 썬큰무대에서 DJ KOO(구준엽)의 디제잉과 파티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수원역 MOU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9월 29일에 한국철도공사 수원역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경기도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경

기도문화의전당 오인수 전략사업본부장, 정호순 전략사업팀장과 한국철도공사 오진호 수원역장, 김원양 부역장 등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녹색성장(기차타기)을 실천하고 다양한 관광·문화·여가활동의 증진을 위한 수원역 및 전당의 이용 활성화와 양 기관 상호협력체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GYEONGGI
ARTS CENTER
CALENDER

2011
11

경기도문화의전당
11월공연일정

- 행복한 대극장
- 아늑한 소극장
- 빛나는 갤러리
- 소담한 갤러리
- 경기도국악당
- 신나는 야외극장

** 공연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전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gac.or.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나눔을 위한 정기연주회 19:30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여름뽀리」 11:00	경기도립국악단 「It's 사물놀이」 19:30 뮤지컬 「피노키오」 10:10 / 11:20	뮤지컬 「피노키오」 10:10 / 11:20 / 16:00	뮤지컬 「뽀로로」 11:00 / 14:00 / 16:30 뮤지컬 「피노키오」 11:00 / 14:00 / 16:00
6	7	8	9	10	11	12
뮤지컬 「뽀로로」 11:00 / 14:00 / 16:30 뮤지컬 「피노키오」 11:00 / 14:00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 19:30	2011 향토음악제 19:30 클래식기타여행 19:30	러브콘서트 20:00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여름뽀리」 11:00	Arts on Screen 10:00	제16회 농업인의 날 13:00	뮤지컬 「메노포즈」 15:00 / 19:00 신동아 음악신문 전국장학공쿨 10:00
13	14	15	16	17	18	19
뮤지컬 「메노포즈」 15:00 / 19:00 제6회 모노디첸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 19:00		사모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수원여대 무용과 발표회 19:30	대한민국국악제 19:30 장명기독주회 19:00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여름뽀리」 11:00	수원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빛, 그림자 뮤지컬 「피터팬」 10:10 / 11:20	장애인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19:30 빛, 그림자 뮤지컬 「피터팬」 12:00 / 14:00 / 16:00 명인을 만나다 - 최근순 17:00
20	21	22	23	24	25	26
코리아플룟오케스트라 19:30 빛, 그림자 뮤지컬 「피터팬」 13:00 / 15:00	제16회 코람데오 남성중창단 정기공연 19:30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여름뽀리」 11:00	수원시니어스합창단 19:30	경기도립무용단 「도미부인」 19:30 남양유업 임신유아교실 14:00	경기도립무용단 「도미부인」 17:00 경기심포니커 정기연주회 19:00
27	28	29	30	1	2	3
	수원여대 연기영상학부 졸업공연 19:00	뮤지컬 「노들담의 꿈추」 09:30 / 11:00 / 13:30 수원여대 연기영상학부 졸업공연 16:00 / 19:00	뮤지컬 「노들담의 꿈추」 09:30 / 11:00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여름뽀리」 11:00		경기팝스앙상블 19:30	
4	5	6	7	8	9	10
남진콘서트 15:00 / 19:00		수원기독남성합창단 19:30	체코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 내한공연 19:00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여름뽀리」 11:00	수원시립합창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19:30 Arts on Screen 10:00	수원시립교향악단 제213회 정기연주회 19:30 제8회 수원시종합자원봉사의 날 행사 14:00	전국학생장학공쿨 10:00